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02
----------	------

발의연월일 : 2025. 3. 13.

발 의 자 : 김예지 · 최수진 · 박덕흠
서천호 · 김선교 · 김소희
정성국 · 최형두 · 서미화
정준호 · 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도로의 너비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한 자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 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 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 설(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 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u>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도로의 너비로 인하여 시설 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

	<u>정되는 경우</u> 3. <u>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u> <u>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u> <u>경우</u>
--	--